



2일 여주시 낙포동 인근 신덕마을 해변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이틀 전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로 해변에 밀려든 기름 찌꺼기를 닦아 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씨프린스 악몽 겨우 떨쳐냈는데... 주민들 망연자실

19년만에 또 기름유출 피해 여수 신덕마을 르포 ▶2·6면

2일 오후 여수시 삼일동 신덕마을에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민 배홍심(여·60)씨는 "악취에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 병원으로 실려간 아이들과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신덕마을에 떨어진 날벼락은 설날인 지난 31일 오전 9시 30분께 싱가포르 선적 16만4169t급 유조선이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 접안하던 중 육상에 설치된 잔교에 부딪쳐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잔교에는 여수산단 내 석유업체와 연결된 송유관 3개가 있었으며 총들로 모두 파손돼 관 속에 남아 있던 원유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었다.

시커먼 기름 덩어리는 4km가량 떨어진 신덕 마을 해안가를 덮쳤다. 미역과 파래, 톳을 채취하던 갯바위 틈과 자갈밭은 검은 기름 물로 가득했다.

한가롭게 설 명절을 즐기던 주민들은 지난 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로 기름 유출 '악몽'을 떠올리며 "왜 우리 마을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인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당장, 125ha에 달하는 마을 공동 어장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바지락·미역·전복 등 22가지에 이르는 해산물을 길러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던 청정 해역을 망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씨프린스 사고 이후 신덕마을은 또다시 기름 유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생각이 분통도 터져 나왔다.

마을 청년회 송재석 부회장은 "신덕 앞바다는 풍부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청정 해역으로 손꼽히던 곳"이라며 "이번 사고로 더 이상의 어패류 수확은 불가능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사고 발생 뒤 즉각적인 방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농장 대응에 피해를 키웠다는 불만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어촌계장 김종기씨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조차 없다"면서 "지금 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해양경찰, GS칼텍스 업체 직원, 여수시 공무원 등 1000여명은 밀려오는 기름띠를 조금이라도 몰아내야 삶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다

해안가 검은 기름 덮쳐 어패류 수확 물 건너가 "농장대응 피해 키워" 분통 오동도·남해대교까지 확산 윤장관·박지사 현장방문

는 생각이 방제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기름띠가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길이 4km, 폭 1km 범위에 형성된 것 이외에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오동도, 경남 남해시의 남해대교 부근에서도 확인됐다는 점 등을 들어 유출된 기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여수해경은 2일 "환경과 어선 방제업체 선박 등 총 200여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는 등 현재까지 바다로 흘러든 기름의 70% 이상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지난 31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빈틈없는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원유 유출과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대책도 강구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여수 낙포2부두와 신덕해안을 방문,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덕마을 주민들을 만나 신속한 방제 작업과 피해 조사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큰 선박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과 연관이 돼

있어 피해와 원인조사가 명백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2일 사고지역을 방문해 유류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1일부터 박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기름찌꺼기 제거작업(갯닦기)을 위한 공무원 등 인력지원 활동을 3일부터 추진기로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변호사 수임제한 해제

저는 2013. 2.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사직하고 여러분의 성원 속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법에 따른 전임직 수임제한이 해제되기에 광주고등법원(고등검찰청 포함) 사건에 관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금호고. 서울대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청정 검사
- 서울동부지방법원청정 검사
- 미국 UNC 로스쿨 국비 연수
- 광주지방법원청정 순천지청 검사
- 광주지방법원청정 검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김 준 성 올림

■사 무 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14-20 광주지방법원변호사회관 303호(법원정문 앞)
■대표전화 : (062) 233-3030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여야 선거체제 전환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지나고 6·4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올라 조짐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오는 4일이 광역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어서 여야 각 당은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날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 역시 3월까지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간 새정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치혁신안

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안 의원 측도 '새정치 플랜'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조만간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설 이전 광주·전남 시·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일부 후보들이 이어 오는 5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12일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소속의 강은태 광주시장과 새정치연합의 윤장현·김효석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도 공식 출마선언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이며 '중진차출설'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민주당 박지사도 여론 상황을 보며 출마기회를 엿보는 등 빠르게 경쟁구도가 짜여져갈 전망이다.

나이가 현직에 있지 않은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 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만의 별도 공천기준 없다"

김한길 대표...야권연대·일부 단체장 양보 시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30일 호남지역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다른 지역과 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호남에서 보낸 김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6·4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호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기준을 두겠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명분이 크지 않다는 게 최고위원회의의 결론이었다"며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5면>
김 대표는 또 그동안 선거에서 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이 가장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이 새누리당 승리로 가는 것은 절대

로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상황에 따라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 3개 중 하나를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 여론이 요구하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 국제경기지원특별법 개정안,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곡 제정법' 등 지역 현안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ERA

•유명백화점이나 아마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

꼭 차오르면서 환하게
확 바뀐 얼굴로 사는 거예요

헤라 셀-바이오 크림

확 나빠지긴 쉬워도 확 좋아지긴 어려웠던 여자 피부. 셀-바이오 크림은 5개국 특허를 받은 헤라의 차세대 안티에이징 성분, 셀-바이오 올니포커스*가 피부 문제를 핵심에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피부의 틀을 바꿔줍니다. 꼭 차오르면서, 환하게, 확 바뀐 투명동안 피부를 경험하세요

4주 사용 후 사용자의 100%가 탄력/빛도/결/윤기/수분 개선
95.45%가 톤/투명도 개선의 피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NEW
주름개선기능성
디.백.기.동.영
수분막막관리원리

Cell-Bio, 피부-통화-표출관
30년 생화학연구로 얻은 안티에이징 성분과 함께 30년 연구한
가죽과 구조를 모사, 피부의 근간을 이루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확 바뀐 투명피부를 선사합니다

*4주 사용 후 사용자의 100%가 탄력/빛도/결/윤기/수분 개선
95.45%가 톤/투명도 개선의 피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5주 사용 후 사용자의 100%가 탄력/빛도/결/윤기/수분 개선
95.45%가 톤/투명도 개선의 피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